

경제

나주 공동혁신도시 1조5000억 공사 발주 침체 지역 건설경기에 '단비'

한전 청사·열병합발전소 등 상반기 착공 최소 40%는 지역업체 몫...과급효과 클듯

나주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에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각종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어서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나주시와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기관 청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9800억원, LH 기반시설비 2300억원,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건립비 27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대

규모 공사가 진행된다.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전기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총 2286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우선 1분기에 수질복원센터(650억원)와 하수처리시설(500억원)을 발주하고, 3분기에 874억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기반조성 사업 등을 합하면 기반 조성에만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한전 청사 등 이전기관 건축 공사의 발주도 잇따를 전망이다. 9800억원대에 달하는 청사 신축 물량은 올해부터 2~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건축공사비의 40%는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돼 4000억원 가량이 지역 업체 몫이 된다.

나주혁신도시 내 최대 이전기관인 한전은 이달 말이나 4월 중 2884억원 규모의 청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어서 누가 사업권을 움켜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4월 초순 건축허가가 나면 곧바로 발주에 들어갈 한전KPS의 공사물량도 925억원에 달하며, 상반기에만 전력거래소(743억원)·농업연수원

(254억원)·전파연구소(265억원) 등 굵직굵직한 발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업비 2749억원 규모로 한전 다음으로 큰 공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돼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한편, 중견건설업체인 (주)부영은 혁신도시내에 골프장과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조만간 전남개발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소 40%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연쇄적인 과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아이 신발, 뭘 고를까
과 주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대표 : 조창현) 8층 미키하우스 매장에서는 나들이 계절이 오면서 미키마우스, 핫비스트, 더블비 등 다양한 캐릭터로 만든 신발을 선보여 아이들과 주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통운 예비입찰 28일 마감

포스코·롯데·CJ '3파전'... 입찰가 최대 2조원 예상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오는 28일 마감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포스코와 롯데그룹, CJ그룹으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예비입찰서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인수의향서를 낸 세 곳의 결정 사유를 살펴본다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찰서에는 인수 금액과 함께 자금조달 계획, 인수 뒤 경영 계획, 시너지 효과 등을 넣어야 한다. 구속력 없이 본인할 때 변경할 수 있지만,

인수금액은 최종 수처에 근접하게 적어내야 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인수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분석이 잇달아 나오면서 인수 희망 업체들은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인 대한통운 지분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18.98%와 18.62% 등 총 37.6%이며, 매각 가격은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예상된다.

가격 외에 고용 보장 문제와 금호리조트 지분 인수 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통운 노동조합이 고용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금호리조트 지분은 대한통운과 금호산업이 50%씩 나눠 보유하고 있는데, 인수자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호산업 보유분까지 사들이면 가산점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금호리조트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인수 후보자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입찰 후에는 5월13일까지 최종입찰을 받고 같은 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7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게 된다. 매각 주간사들은 6월30일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중동서 철수한 1군 건설사들 국내 혈투

2600억대 화양~적금 '턴키공사' 주인공 누구?

올해 국도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2600억대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의 주인공이 5월 초 가려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최근 발주한 '화양~적금 도로 2·3공구 턴키공사'

입찰에 총 8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화양~적금 2·3공구는 총 연장 5.9km이며, 공사금액은 2612억원이다.

2공구 사업에는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을 대표사로 하는 4개 컨소시엄이 신청했고, 3공구에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4개 컨소시엄이 각각 참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공능력평가액 10위권 가운데 무려 8곳이 경합에 뛰어들었다.

이는 국내 공공발주 감소와 최근 리비아 등 중동 민주화 사태로 해외 건설 수주가 위축되면서 국내 공공공사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4월6일 공동 설명회를 연 뒤 현장 답사, 설계 검토를 거쳐 5월2일께 실시계획적격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행권 PF대출 연체율 금상승

2월중 6.67% ... 전달보다 1.8%p 올라

지난달 국내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6.67%로 전달말(4.87%)에 비해 1.80%포인트나 올랐다.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회사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연체율도 각각 3.85%와 2.58%로 전달말 대비 1.27%포인트와 0.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1.14%로 전달말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 연체율은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전달말(0.55%)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5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34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3 13 20 24 33 37	3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480,060,266	8
2	5개 숫자+번호 숫자 일치	53,335,506	37
3	5개 숫자 일치	1,056,998	1,867
4	4개 숫자 일치	50,000	78,263
5	3개 숫자 일치	5,000	1,217,852

광주·전남 올해 나들가게 321곳 오픈

정부 지원을 받은 혁신형 동네 슈퍼마켓인 '나들가게'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321곳이 새로 문을 연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양봉환)은 27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나들가게 육성 사업 신청을 받아 광주·전남지역 321개, 전북지역 20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3000개 점포가 선정됐다.

중기청은 유통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컨설팅팀을 권역별로 배치해 나들가게의 소규모 환경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선 비용을 점포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하고 진열상품 재배열이나 간판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중기청 또는 홈페이지(www.nadd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항 물동량 14.6% 증가

국토해양부는 올해 2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9천349만톤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만별로는 평택·당진항이 현대제철의 철광석 수입 증가로 작년 동월 대비 15.9%, 광양항은 유연탄 및 유류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14.6% 각각 증가했다. 포항항은 철광석과 무연탄 수입 감소로 8.6% 줄었다.

품목별로는 유연탄과 시멘트가 각각 30.4%, 11.2% 늘었고, 유류는 10.7% 증가했다. 반면 화학제품과 광석은 각각 8.1%, 0.6% 감소했다.

/*연합뉴스

LH, 현장중심 업무체제 돌입

광주·목포·순천권 사업단 현판식 ... 보상·개발 등 일원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유영일)는 최근 광주권·목포권·순천권 사업단 현판식을 잇따라 열고 현장중심 업무체제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권사업단은 광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첨단2, 수완, 선운, 효천2, 백운, 학2)를 일원화해 현장에서 직접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상, 토지·주택관리, 단지개발, 건축 등을 일원화해 현장 사업단에서 담당한다.

목포권·순천권 사업단은 그동안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아파트 등 주거복지업무를 이관받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H 광주권사업단이 지난 24일 광주시 남구 효천2지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LH 광주전남본부 제공)

암 걱정? 이제 끝~

대리점 및 GSC(진스토리컨설턴트) 모집

- 정확합니다
유전자 증폭검사로 증상이 없어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 간편합니다
사전 금식과 약물 투여 없이 간단한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편리합니다
바쁜 일상을 쫓아 검사받기 힘들셨죠? 편한 시간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세요. 3분이면 끝납니다.
- 저렴합니다
CT, 내시경, PET-CT... 너무 비싸죠?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합니다
한가지 검사를 하니 다른 암도 걱정이 되시죠? 모든 암이 한번의 검사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로 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암 유전자검사 전문기업 —
genestory
아름다운 유전자 이야기

(주)진스토리 문의전화: 062-385-2212~3 www.genestory.kr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72-1 3층

원적외선의 웰빙 및 에너지 절감기 출시

울트라는 웰빙 및 신개념 절전시스템으로 일석삼조효과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웰빙

- 조명 및 전자제품에서 방사된 원적외선은 친환경과 인체 신진대사 및 경락 순환에 탁월함.
- 학생 공부방 스텐드 조명기구에서 원적외선 방사
 - 조도 3~4%이상, 실내공기 정화
 - 몸의 컨디션 향상
 - 공부 집중력 향상
- 전기메트에 원적외선 방사로 전자파 중화 및 치료효과
- 병원 물리 치료실과 사우나실의 원적외선 기기 활용
 - 온열요법 중 가장 강한 열작용으로 어깨 뻣임과 근육 피로해소
 -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영양공급 균형유지
 - 인체 적정 수분 유지
 - 노폐물, 독소 배출 촉진 및 냄새 중화

친환경 체임 웰빙

- 김치, 육류 아재, 과일등 맛과 신선도 향상(특히 김치 맛 최고)
- 전자파, 정전기, 수백과 중화작용
- 냉장고 보관 식품에서 나는 냄새역제
- 조명기기, 냉장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 성능 및 수명 2배 이상 연장
- 어항(수족관) 속 이끼 방지, 물이 깨끗해지고 썩지 않음, 물속에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짐
- TV, 컴퓨터 화질 선명도 향상

전류개선으로 화재예방 및 전기요금 절감

- 전기 저항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를 유효에너지로 환원(최소 5%이상) 저탄소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탄소은행 연계)
- 설치 전과 후가 동일조건 일 경우 전기요금 7~20%절감(누진율)

사례 : 광주지역 금호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조대부속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 특허제품(제10-0994817호) ISO 9001 : 2000 인증획득

대리점 및 컨설팅 모집

시·군·구 각 1개소

KESECO ULTRA
www.keseco.com KESECO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26-3(2층)
전화 062-652-6661 팩스 062-362-6661